

06.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음 받은 인간

인간은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을 넘어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분께 참여한다는 것은, 상호 통교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이신 그분께 참여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이것은 분명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계시입니다. 물질세계, 식물계, 동물계를 창조하신 뒤 —천사들의 세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와 인간 사이에는 뚜렷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그분을 반영할 뿐 아니라, 비인간적 자연보다 훨씬 더 높은 방식으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물론 이러한 유사성이 인간 본성과 신적 본성 사이의 구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상징적 언어로 이 실재를 표현하는데,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고 합니다".²

물질적-동물적 세계와 신성 사이에 자리한 인간의 이 중간적 위치는 양 극단에서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모든 피조물의 절대적 주인으로 자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단순히 동물 진화의 산물로 여기면서 —아무리 복잡한 진화라 하더라도— 영성과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오류를 피하고 이 신앙의 진리를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경험을 성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구성하는 많은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지 못합니다(외적 장애물이든 내적 장애물이든 간에). 우리는 통제하지도, 원하지도, 예견하지도 못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되돌리거나 멈출 수 없는 시간과 사건의 흐름 속에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한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유한성을 벗어나거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무한으로 열어놓는 우리 삶의 특징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우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지성이 어떤 의미에서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한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는 원하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생각하고 바랄 수는 있습니다. 설령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드시 닥쳐오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것에 맞서거나 내적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지금' 안에 살면서 과거를 바라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느 정도 미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한 물질 세계 안에서 분명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유한성의 조건들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 점에서 우리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영이신 하느님을 닮았음을 봅니다.

어떤 인본주의 이론은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되, 유한한 영혼 — 다소 계몽된 — 을 주장하면서, 그 영혼이 하느님의 모습도 아니고 따라서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의 본성은 그 자체로 절대자에 참여하고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결국 인간 존엄성을 희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초자연적 삶을 사는 것, 아니면 동물적 삶을 사는 것."*³

2. 사랑으로 창조되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진술을 함축합니다. 즉,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느님은 완전하고 절대적이시기에 아무것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로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완전히 초월적이시고 자유로우십니다. 즉, 그분은 세상과 인간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창조는 그분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또는 하느님의 뜻을 자주 우리의 논리나 조건에 종속시키려는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면, 이는 인간과 가능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이고 유한한 것을 넘어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영혼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가시적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창조주를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사목 현장 12,3), 인간은 '이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해 사랑하신 유일한 피조물'(사목 현장 24,3)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삶과 사랑으로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이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⁴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상호 통교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통교가 친밀한 내면의 것이라면, 그 주도권은 오직 하느님께서 갖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인식은 그 자체로는 하느님의 내면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어, 당신의 가장 내밀한 본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심오한 계시는 성 요한을 통해 가장 명시적으로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 요한 4,8).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사랑이신 그분께 참여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과 정의이며, 인간이 무엇이고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⁶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이미 그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1 요한 4,10).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1 요한 4,19). 그러므로 도덕적 삶의 모든 역동성, 즉 덕들은 사랑, 애덕으로 이루어집니다. "애덕은 다른 덕들의 행위를 궁극적인 목적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덕들에 형상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애덕은 덕들의 형상이라고 불립니다."⁹

3. 인간의 차원: 지성, 의지, 감정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 또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하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욕구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욕구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또는 이타적으로, 본성의 여러 층위에서 —감각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그리고 매우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욕구할 수 있으며, 이 욕구는 욕구 자체와 욕구하는 주체를 다양하게 특징짓습니다. 신앙의 빛은 하느님의 모습인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사랑의 방식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느님처럼, 또는 영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성이 감정 안에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사랑을 타인을 향해 열고 이끌도록 감성을 이성의 층위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 자유롭게 또는 의지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으로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차원을 발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의 종류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 방식으로 여는 지성 또는 로고스(logos), 이 명확하고 동시에 사랑스러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의지, 그리고 최고로 깊은 형태에서 사랑 자체를 구성하는 감성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명확성, 자유, 또는 참된 사랑이 없는 비 영적 층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세 가지 인간적 차원을 더 높은, 즉 영적 층위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인간을 순전히 물질적이거나 동물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군집하는 존재로 여기는 환원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 차원에서 지성과 사랑은 조화롭고 동시에 나란히 갑니다. "지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 풍요로운 사랑과 사랑이 충만한 지성이 있을 뿐입니다."10 종종 서로 급진화되고 대립되어 온 에로스(eros)와 아가페(agapé)—욕망의 사랑과 선의의 사랑, 상승하는 사랑과 내려오는 사랑, 소유하는 사랑과 헌신적 사랑 등—는 서로 높아지고 정화됨으로써 통합됩니다. "실제로 에로스 와 아가페—상승하는 사랑과 하강하는 사랑—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양한 정도로나마 하나의 사랑의 실재 안에서 올바른 일치를 이룰수록, 사랑의 참된 본질은 더 잘 실현됩니다. 에로스는 처음에 무엇보다도 열정적이고 상승하는 것—행복의 위대한 약속에 매혹된 것—이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덜 묻고, 타인의 행복을 점점 더 구하며, 타인을 걱정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타인을 위해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아가페의 요소가 처음의 에로스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로스는 격하되어 자신의 본성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강하는 헌신적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주기만 할 수도 없고 항상 줄 수도 없습니다. 그도 선물로서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11

4. 인간의 사회성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본질을 사랑으로 계시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말입니다. 하느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삼위이시며,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위격들의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미 우리 안에 그 인격적 사랑의 흔적 또는 참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 차원, 즉 타인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자연적 경험에서도, 그리고 타인을 또 다른 인격으로 경험하는 데서도 이미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랑이 욕구라면 움직임 일으키며, 자연스럽게 주체를 자신으로부터 더 높은 것, 다른 인격들을 향해 이끌어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타인들에 대해 갖는 참된 경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면 응답할 수도 있는 다른 '사물들'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미 처음부터 응답을 요구하며, 우리가 우선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다른 '주체들'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자연적 발견은 우리가 고찰해 온 신앙의 진리, 즉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인간이라는 진리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실제로, 타인이 하느님의 모습이라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격적 사랑입니다. "진리로 가득한 사랑은 인간이 사랑의 풍요로운 가치들을 그 전체 안에서 이해하고 나누며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리는 '로고스'이며, 이는 '디아로고스(dialogos)', 곧 대화와 통교를 만들어냅니다. (...) 진리는 사랑의 로고스 안에서 인간들의 지성을 열고 결합시킵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포이자 증언입니다."¹² 이 때문에 신약성경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하나로 묶어 제시합니다.¹³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느님'이시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사랑해야 합니다."¹⁴

깊은 인간학적이고 윤리적인 이 전제들에 인간의 사회성이 근거하며, 그것은 단지 공동체 안에서의 필요하고 유익한 공존이라는 사실적 문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성도 사랑에서 자양분을 얻으며,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가족과 우정이 그것입니다. 오직 사회화를 통해, 타인들과 접촉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인간은 '타인들에게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줌으로써'(사목 헌장 24 항)가 아니고는 자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며, 충만함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인들과 만남이 없이는 자신의 참된 진실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¹⁵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에서도 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 이로부터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족에 대한 풍요로운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인격적 친교라는 신비 안에서 사십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그 존재를 보전하심으로써, 인간의 남성성과 여성성 안에 사랑과 친교의 소명,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과 책임을 새기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이고 타고난 소명입니다."¹⁷

우정에 관해서도 —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5) — 마찬가지로입니다. 우정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자양분을 얻으며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는 고양되어 참으로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으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정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기를
희망합니다."19

참고 문헌:

- “가톨릭교회 교리서”, 355-368 항.